선교적 공동체 세우기

사단법인 미셔널신학연구소 지음

사단법인
미셔널신학연구소
INSTITUTE FOR
MISSIONAL THEOLOGY

선교적 공동체 세우기

발 행 | 2025년 02월 26일
저 자 | 사단법인 미셔널신학연구소
펴낸이 | 한건희
펴낸곳 | 주식회사 부크크
출판사등록 | 2014.07.15.(제2014-16호)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19 SK트윈타워 A동 305호
전 화 | 1670-8316
이메일 | info@bookk.co.kr

ISBN | 979-11-419-9343-6

www.bookk.co.kr
© 사단법인 미셔널신학연구소 2025
본 책은 저작자의 지적 재산으로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차례

1단원

1과_ 선교적 공동체 15

2과_ 성령을 보내심 25

3과_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 35

4과_ 선교와 교회의 변화 47

2단원

5과_ 복음과 자유 61

6과_ 복음과 가치 75

7과_ 복음과 새 창조 87

8과_ 복음과 화해 103

3단원

9과_ 선행과 선포 **119**

10과_ 일상과 선교 **131**

11과_ 소망의 이유 **147**

12과_ 소망의 보증 **159**

4단원

13과_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1) **175**

14과_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2) **185**

15과_ 주인으로 살아가기 **199**

16과_ 손님으로 살아가기 **213**





1단원

Chapter 1

선교적 공동체

1과_ 선교적 공동체

<선교적 공동체 세우기>는 선교적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각자가 지식, 태도,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총 16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주에 2개의 과를 진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오늘은 이 교육과정이 다루고자 하는 '선교적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공동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교회도 공동체이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목장이나 팀도 공동체로 모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선교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기에 어렴풋이, 또는 명확하게 이 뜻을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은 '선교적'이라는 말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선교적'이라는 표현은 영어단어 '미셔널'*(missional)을 번역한 것입니다. 미셔널이란 단어 또한 원래 없던 말인데, '미션'*(mission)을

형용사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원래 '미쎤'이라는 영어단어는 '미씨오'*(missio)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파송', '보냄'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 말은 주로 종교적, 군사적 맥락에서 '파송'을 의미하는 것으로부터, 보내진 사람이나 단체가 수행해야 할 특별한 '임무', '사명'을 뜻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미셔널, 미션, 미시오가 바른 표기이지만 발음상 미쎠널, 미쎤, 미씨오로 읽히기에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적'이라는 표현은 사실 좀 아쉬운 표현입니다.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선교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원래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선교적'이란 표현을 듣거나 사용할 때 라틴어 어원대로 '보냄'이라는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누군가를 어디로 보낼 때는 특별한 사명이나 목적이 전제된다는 것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적 공동체'라는 말은 '보냄 받은' 공동체로서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선교적 공동체는 '어디로?' 또는 '누구에게?', '무슨 목적과 사명을 위해?' 보냄을 받은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경 속으로

아래 말씀을 충분히 읽으시고, 질문에 대한 답을 순서대로 기록해 보세요.

1. 요한복음 20장 19-23절

1) 본문의 사건은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2) 제자들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3) 예수님의 말씀(3-4가지)과 행동(3-4가지)을 각각 구분해 보십시오.

<말씀>

<행동>

4) 차분히 이 본문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관찰했던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하나하나 눈앞에 떠올려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계속되면서 이들의 마음은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습니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 처형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단순한 인사말이었지만,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는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 서서 말씀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당신을 '아버지께 보냄 받은 분'으로 소개하십니다. 아버지, 곧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처럼 제자들을 향해 후-우 하고 숨을 내쉬셨습니다.

>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알듯 말듯 아리송합니다. 제자들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권세가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용서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을 권세 말입니다.

— 핵심 정리

1. 제자들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세상으로 보냄 받았습니다. 더 정확히는 '누구에게나' 보냄 받았습니다. 그들은 죄를 갖고 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참고. 요 3:16).

2. 제자들은 그들에게 보냄 받아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도록 일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참고. 요 1:12; 20:31).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사명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누리도록 돕는 일입니다.

— 성찰하기

1. 오늘 공부한 내용에 따르면 '선교적 공동체'란 무엇입니까? '어디로, 누구에게, 어떤 목적과 사명 때문에' 보냄 받았습니까? 성도님의 표현으로 적어보세요.

2. 내가 지금 보냄 받은 자리, 사람들, 환경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시고자 나를 보내셨을지 깊이 묵상해 봅시다.

3. 오늘 공부한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 질문, 느낌, 감정 등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Chapter 2

성령을 보내심

2과_ 성령을 보내심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시간 공부했던 '선교적 공동체'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아래에 한 번 적어보시겠어요? (기억이 잘 나시나요? 지난 내용을 다시 되새기는 것은 학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습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 지난 내용 정리

1. 요한복음 20장의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선교적 공동체는 예수님에 의해 세상에 '보냄 받은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죄 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교적 사명을 위해 세상에 보내실 때,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선교적 공동체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교회의 사명에 있어서 무엇을 가르쳐줄까요?

— 성경 속으로

아래 말씀을 충분히 읽으시고, 질문에 대한 답을 순서대로 기록해 보세요.

1. 요한복음 14장 16절, 26-27절 / 요한복음 15장 26-27절

1) 이 구절들이 예수님의 성령 보내심에 대해 알려주는 추가적인

정보는 무엇인가요?

2) 제자들의 선교적 사명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이라 나타나 있습니까?

이어서 아래 말씀을 충분히 읽으시고, 질문에 대한 답을 순서대로 기록해 보세요.

2. 사도행전 1장 8절 / 사도행전 2장 33절

1) 이 구절들이 예수님의 성령 보내심에 대해 알려주는 추가적인 정보는 무엇인가요?

2) 제자들의 선교적 사명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이라 나타나 있습니까?

3) 위에서 관찰하신 본문(요한복음, 사도행전)의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두 본문은 각각 다른 저자(요한, 누가)에 의해 기록된 장면이며, 맥락도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 '성령의 보내심'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맥락에서 등장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령 주심을 이러한 맥락과 상관없이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로부터 성령님에 대한 많은 오해가 발생하곤 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시는 일은 선교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교회의 선교와 분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성부 하나님께 받으셔서 보내십니다. 요

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먼저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보내신다는 것을 더하여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일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어 지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성령을 주시는 일은 선교적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선교의 주도권은 교회에 있지 않고 삼위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영원토록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님은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교회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세상 풍파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위로자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십니다. 성령님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 핵심 정리

1.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신 것처럼, 성부와 성자는 교회의 선교적 사

명을 위해 성령을 보내십니다. 세상을 향한 선교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에,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성령님께서는 교회와 함께 하시며 교회에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배우고 깨달아 세상에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교회에 평강을 주시고 두려움 없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우십니다.

— 성찰하기

1. 성령님께서 내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거하셔서 하고 계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와 우리는 그 일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2.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인이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어떤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사실이 지금 나와 우리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들에 주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3. 오늘 공부한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 질문, 느낌, 감정 등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Chapter 3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

3과_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시간 공부했던 '성령을 보내심'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아래에 한 번 적어보시겠어요?

— 지난 내용 정리

1.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신 것처럼,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교회에 보내십니다. 세상을 향한 선교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 성령을 보내심은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아 세상에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교회의 선교를 이끄신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 성경 속으로

아래 말씀을 충분히 읽으시고, 질문에 대한 답을 순서대로 기록해 보세요.

1. 사도행전 16장 6-15절

1) 본문에서 삼위 하나님(성부, 성자, 성령)이 언급되는 부분들을 찾아 적어 보세요.

2) 이 본문은 선교에 있어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준다고 생각됩니까?

우리는 선교를 전략과 열심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한다는 부담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선교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을 보면 부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런 생각을 꺾어 놓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전도했고,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성령, 곧 예수님의 영이 그것을 막고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선교와 전도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쉽게 와닿으시나요?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길을 막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분도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결과 또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조바심을 낼 일이 아닙니다. 좌절할 것도 아닙니다. 선을 그어놓고 한계를 정해 놓을 영역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늘 교회를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영역으로 이끄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첫 대상은 선교적 공동체인 교회 자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의 첫 대상'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래 말씀을 충분히 읽으시고, 질문에 대한 답을 순서대로 기록해 보세요.

2. 사도행전 11장 1-18절

— 보충 자료

• 레위기 11장에 등장하는 음식법은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 철저히 지켜야 할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가까이하여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황홀경 중에서도 그것을 잊지 않고 반응한 것입니다.

•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기를 꺼렸습니다. 이방인 중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뿐이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 즉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긴 했지만 할례를 받은 개종자는 아니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의 포인트는 고넬료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할례 없는'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도 이방인들에게 유대교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로 대표되는 모세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1) 사도행전 11장 1-18절은 앞선 10장의 사건을 베드로가 요약하여 말하는 대목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누구에게, 왜 설명해야 했습니까?

2) 베드로의 설명을 통해 교회가 새롭게 깨닫고 인정하게 된 사실은 무엇입니까?

고넬료 사건은 교회의 선교에 있어서 매우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땅끝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행 1:8). 그러나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은 제자들조차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이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가 율법과 규례를 어기고 할례 없는 이방인과 접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애초에 베드로 자신도 꺼려했던 일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일인지 이방인인 우리가 상상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넬료 사건으로 시작된

이방인 선교는 나중에 교회에 큰 문제가 되어, 최초의 교회 회의까지 소집되는 결과를 낳을 정도로 논란이 큰 사건이었습니다(행 15장).

정말 다행히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과 할례가 없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방인인 우리도 할례 없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가 주어졌고(보자기 환상), 제자들은 거기에 순종했습니다(이방인 고넬료를 만나 복음 전함). 그리고 그 경계를 넘는 순종의 결과로 새로운 사건과 경험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할례 없는 이방인에게도 예수 복음만으로 성령이 임함). 그리고 그것을 통해 교회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이방인에게도 생명의 회개를 주심).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첫 대상은 교회다'라는 표현을 통해 나타내고자 한 의미입니다. 단지 복음이 경계를 넘어 이방인에게 전파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가 가진 인식의 경계 또한 새롭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새로운 깨달음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교에 순종하여 참여하는 것을 통해, 교회는 몸으로 새로운 사실을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 핵심 정리

1. 교회는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교회를, 선교를 통해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길을 막기도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기도 하십니다. 생각의 한계를 넓히시고,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교회를 이끄십니다.

2.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통해) 먼저 변화되어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과정을 통해 교회를 먼저 변화시키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세상의 유익을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일입니다.

— 성찰하기

1. 지난주에 이어 오늘 공부한 내용이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다가오나요? 선교에 대한 나의 인식은 어떻게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2. 선교에 참여하면서 내 자신과 공동체가 변화된 경험이 있다면 기록해 봅시다. 그 일은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습니까? 그것을 통해 나와 공동체가 경험한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3. 오늘 공부한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 질문, 느낌, 감정 등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Chapter 4

선교와 교회의 변화

4과_ 선교와 교회의 변화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 공부했던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아래에 한 번 적어보시겠어요?

— 지난 내용 정리

1.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교 가운데 길을 막기도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기도 하십니다. 교회는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2.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먼저 변화되어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과정을 통해 교회를

먼저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세상의 유익을 위한 일이며 또한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선교를 통해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사실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 성경 속으로

아래 말씀을 충분히 읽으시고, 질문에 대한 답을 순서대로 기록해 보세요.

1. 사도행전 11장 19-26절

— 보충 자료

•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오늘날 육로로 670km 정도이며, 차로 거의 9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1) 20-21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이 표현이 선교에 있어서 가르치는 바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2) 사도행전 11장 19-26절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3) 그 이야기와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는 일(22절)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은 디아스포라(이방 땅에 흩어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 사람들은 헬라인에 대한 이질감이나 두려움이 적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해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일은 앞선 고넬료 사건과 별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셔서 수많은 이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일어난 일은 더욱 놀랍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고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고넬료

사건을 통해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의 문이 열린 상태였기에,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을 때는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움직였지만(행 8:14), 이방 지역인 안디옥에는 우선 헬라파 유대인인 바나바가 파송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보다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이방인 접촉에 대한 사도들의 여전한 부담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음 본문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서신인 갈라디아서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조우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래 말씀을 충분히 읽으시고, 질문에 대한 답을 순서대로 기록해 보세요.

2. 갈라디아서 2장 11-14절

— 보충 자료

• 게바는 베드로의 별명입니다. 게바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베드로입니다(요 1:42).

• 12절의 야고보는 '주의 형제'라고 불리던 예수님의 동생으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지도자 중 하나였습니다(갈 1:19; 2:9).
• 13절에 등장하는 '외식하다'는 말의 의미는 '연기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진짜 생각과 겉의 행동이 다르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1) 갈라디아서 2장 11-14절에서 바울이 게바를 책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게바는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2) 게바는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을 두려워 했다고 합니다. 왜,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3) 게바와 바나바와 다른 '유대인들'이 한 행동이 왜 책망받을 만한 일입니까? 왜 그것을 '외식'이라고 말할까요?

4) 왜 바울은 심지어 그 행동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 말할까요? 복음과 이 사건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사건은 고넬료 사건 이후, 그리고 안디옥에 바나바가 파송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식사할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성도들과 즐겁게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들이 도착하자 그들을 두려워해서 자리를 떴습니다. 이방인과 동석 식사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꺼리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고넬료 사건을 통해 지난 시간 잘 살펴봤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 이후 그 일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유대인 신자들이 나타나자 그들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의식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했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를 따랐고, 군중 심리 때문이었는지 심지어 그곳의 목회자요 선교사인 바나바까지도 그 일에 동참하고 맙니다. 바울은 이것을 '외식'이라 부릅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자유롭게 접촉하고, 이야기하고, 식사를 나누어 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나타나자 자신들의 신념(믿음)과 다른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일로 규정하여 공개적으로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이미 고넬료 사건을 통해, 그리고 안디옥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헬라인들을 통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이 계시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회개는 모든 족속에게까지 나아가야 했습니다(눅 24:47). 무엇보다 할례가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복음은 할례를 뛰어넘었습니다. 주 예수의 복음은 이방인과 거리를 두게 만들었던 정결규례를 뛰어넘었습니다. 무엇보다 베드로와 바나바는 그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한 당사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의 격노가 이해 되십니까?

— 핵심 정리

1.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교회는 변화됩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먼 이방 땅 안디옥에, 헬라인들을 위하여 선교사요 목자인 바나바를 파송하였습니다.

2. 그러나 그 변화는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교회는 언제든 다시 복음에 역행하는 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도 그것을 경험하고도 사람의 시선과 관습을 따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의 행동과 삶을

보고 복음을 이해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식사라는 작은 일도 복음에 역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반대로 복음을 드러내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성찰하기

1. 하나님의 선교에 교회가 순응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모두 사용하셔서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성도님은 지금 어떤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예수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사람들에 대한 의식 때문에 외식하는 일은 없습니까?

2. 위의 질문들을 생각하며 충분한 시간을 들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바뀌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공동체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3. 오늘 공부한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 질문, 느낌, 감정 등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교재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

1차 베타테스터 고광은, 김등양, 김명숙, 김미숙, 김선영, 박명옥, 송승희, 이덕순, 장혜영, 전미라, 최명중, 최은희, 한영희, 현용순

2차 베타테스터 김미숙, 김보라, 송경희, 신영혜, 양선혜, 유지은, 이연호, 이은혜, 이일선, 임선경, 정명희, 조현영, 주성화, 최연희, 허민영

3차 베타테스터 강상아, 강상희, 고영인 김미숙, 김서영, 김선우, 김은비, 김자윤, 김한나, 배은혜, 서규연, 오교창, 유소연, 이아름, 이온유, 이은비, 임수진, 서지인, 전혜령, 정수빈, 정혜영, 조상환, 승희보, 오현민, 유상미, 임선경, 전혜윤, 채슬기, 최민화, 황태연

감수 계민정, 고석창, 금운섭, 김선민, 박성민, 양석효, 조시환, 홍준의

지원 김효선, 양지은, 유재준, 이광민, 이광일, 최병은, 한성복

자문 전소영

디자인 조해원